

2004 수능 언어영역 해설

[정답]

1. ③ 2. ② 3. ② 4. ③ 5. ③ 6. ① 7. ④ 8. ④ 9. ④ 10. ①
11. ④ 12. ⑤ 13. ④ 14. ① 15. ① 16. ① 17. ③⑤ 18. ③ 19. ② 20. ④
21. ② 22. ⑤ 23. ⑤ 24. ① 25. ④ 26. ④ 27. ⑤ 28. ⑤ 29. ⑤ 30. ②
31. ② 32. ① 33. ⑤ 34. ③ 35. ④ 36. ⑤ 37. ① 38. ⑤ 39. ⑤ 40. ⑤
41. ① 42. ② 43. ② 44. ③ 45. ③ 46. ② 47. ② 48. ⑤ 49. ③ 50. ④
51. ③ 52. ① 53. ④ 54. ③ 55. ④ 56. ① 57. ③ 58. ⑤ 59. ⑤ 60. ②

1. 이제 라디오 드라마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리하여 이순신 함대는 6일에 노랑 해상에 이르렀다. 이순신은 전라 좌우도 및 경상도의 수군을 집결시켜 55척의 전선으로 함대를 편성하였다. 이날 이순신은 다시 모든 전선을 이끌고 창선도에 이르러 밤을 지냈다

다음날인 7일, 아군 함대가 당포에 이르러 식수와 연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순신은 그 섬의 주민으로부터 중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왜선 70여 척이 오늘 하오 2시경, 영등포에서 거제를 지나 견내량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순신은 왜선이 수적으로 많음을 알고는 대응책을 고민하였다. 8일 이른 아침에 견내량으로 가서 그 근처의 지세를 관찰한 후 이렇게 말하였다.

“견내량은 싸움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적군은 형세가 불리하면 육지로 올라갈 것이므로,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해야 한다.”

이순신의 계획은 그대로 적중하였다. 이순신의 함대가 후퇴를 가장하면서 뒤로 물러나자, 왜선들은 사기 충천하여 앞뒤를 가리지 않고 따라 나왔다. 양 함대의 전선들이 거의 한산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였다. 이순신은 모든 전선을 향하여 북을 치면서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모든 전선들은 뱃머리를 돌려라. 학익진을 편성하여 적의 선봉을 공격하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전선은 대회전을 시작하였다.

대회전에 성공한 이순신 함대는 각종 포화를 연발하였다. 왜군의 선봉선들도 반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순신 함대의 집중 포화를 막아낼 수 없었고 순식간에 부서지기 시작하였다. 후방에 위치한 14척의 왜선들은 응전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멀리 안골포 및 김해 등지로 도망쳤다.

주어진 드라마의 내용을 파악한 후 그것을 지도상에 적용하는 문체이다. 이순신이 “견내량은 싸움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적군은 형세가 불리하면 육지로 올라갈 것이므로,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해야 한다.”라고 한 후 한산도에서 적의 함대를 대파한 내용이다. 따라서 ㉔의 “견내량”을 적국과 격전을 벌인 곳이라는 것은 일치하지 않은 설명이다.

2. 이번에는 법정 신문의 한 장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판사 : 검사는 피고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세요.

검사 : 네. 피고는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서 그 곳에 갔나요?

피고 :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검사 :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았나요?

피고 : 아닙니다.

검사 : 누군가의 협박이 없었다면 피고 스스로 어떤 위협을 느꼈나요?

피고 : 아니요. 그런 위협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검사 : 피고 자신이 가야겠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가신 거지요?

피고 : 예.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검사 : 피고는 자유 의사로 그곳에 갔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 변호인은 보충 심문하실게 있습니까?

변호사 : 네. 검찰 측에서는 피고가 자유 의지에 따라 그곳에 갔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그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피고는 밤늦은 시간에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해간 셈인데요. 거긴 왜 가셨습니까?

피고 : 안 갈 수 없었습니다. 이사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고, 다른 윗분들이 거기 계신다는데, 제가 못 가겠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 : 피고가 가기 원했던 것은 아닌가요?

피고 : 아니요. 전 정말 그런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에 가 본 적도 없고요.

변호사 : 피고의 자유 의사에 의해서 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셨던 거지요?

피고 :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 : 이상입니다. 판사님

법정에서 벌어지는 검사와 변호사의 심문 내용의 핵심은 범행 현장에 피고인이 가게 된 행동이 자유 의사에 의산 것인지, 아니면 갈 수밖에 없었던 외부적 요인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따라서 쟁점은 ‘피고의 행동이 자유의사에 따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적절하다.

3. 이번에는 어떤 발표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다음과 답지까지 잘 들은 후에 푸는 문제이니,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직업과 관련한 의사 소통의 문제 중에, 오늘은 의사와 환자의 의사소통에 대해 조사한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환자들은 의사의 말에 대해 대체로 두가지 무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거나 병에 대해서 물어도 의사가 반응이 없을 때, 환자는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둘째, 의사가 설명을 해 준다고 해도 전문적인 용어로 어렵게 설명하는 바람에 호나가자 그

말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의사들도 환자의 말에 대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환자들이 의사보다 너무 앞질러 생각하여 말하는 경우를 지적하고 있죠. 환자 자신이 진단을 내리고 마치 그것을 의사에게 확인받으러 오는 듯이 말이죠. 둘째, 심지어 환자는 의사가 처방을 내려도 불신을 갖고 검사 지시나 처방을 거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물음과 답지를 함께 들려 드립니다. 답지는 남성인 환자와 여성인 의사의 대화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들은 의사 소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발표에서 지적한 사례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첫 번째 대화입니다.>

환자 : 의사 선생님. 아까 아랫배를 누르실 때 콧콧 쭉시던데 심각한 건 아닌가요?

의사 : 가만히 계세요. (짜증나는 듯이) 어디 다른 곳부터 먼저 봅시다.

<두 번째 대화입니다.>

환자 : 의사 선생님. 그럼 감기가 아니고 폐렴이라는 말씀입니까?

의사 : 네 폐렴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대체 이 지경에 되도록 병원을 차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꾸중하듯이)

<세 번째 대화입니다.>

환자 : 의사 선생님. 여기 왼쪽 다리만 자꾸 쥐가 나는데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의사 : 쥐가 나는 것은 근육 경련 현상인데, 그 디하이드레이션이나 유산 축적, 극소 순환장애, 또는 근섬유의 부분 파열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화입니다.>

환자 : 의사 선생님. 속이 쓰리고 신물이 넘어 어젯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분명 십이지장인데 암으로 될 수도 있나요?

의사 : 십이지장 위양인 줄은 어떻게 아셨어요?

<다섯 번째 대화입니다.>

회사 : 환자분의 경우 CT촬영부터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최종 결과에 대해 의논해 봅시다.

의사 : 그거 괜히 불필요하게 비싼 검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발표에서 환자와 의사와의 의사 소통에 대해 제기된 문제를 소개하고 있다. 제시된 사례 중, 첫 번째 대화는 환자의 물음에 의사의 반응이 없는 경우이고, 세 번째 대화는 의사가 전문적인 의학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이며, 네 번째 대화는 환자가 의사보다 너무 앞질러 생각하여 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다섯 번째 대화는 환자가 의사의 검사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이번에는 수업 상황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 인터뷰 질문은 두서없이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인터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죠. 그럼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묻고자 할 때 어떠한 질문의 순서가 좋을까요? 자, 여기 칠판을 보세요. 먼저 사실적인 세세한 질문부터 시작하고 거기서 얻어낸 사실을 근거로 그 사람의 의견을 묻는 방식이 있어요. 여기서 사실적인 질문은 ‘누구’, ‘무엇’, ‘언제’처럼 간단히 제한된 답만 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고, 의견을 묻는 질문은 ‘왜’, ‘어떻게’처럼 답변자가 시간을 갖고 다양한 답변을 보일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면 좋죠. 또 답변자의 심리를 고려하여 부드럽고 쉬운 질문을 먼저하고 날카롭고 어려운 질문은 나중에 하는 것이 낫겠죠. 여기 인터뷰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인터뷰를 들어 보시고, 사회자의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순서대로 평가해 보세요. 자, 이제 들어보세요.

사회자 : 우리 학교에 다니는 인기 가수 김영은 학우를 모시고, ‘청소년 연예인의 또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섯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김영은 : 네, 솔직히 대답하겠습니다.

사회자 : 곧장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죠. 반에서 인기가 많을 텐데요. 친한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죠?

김영은 : 많진 않아요. 두 명 정도와 친하게 지내요.

사회자 :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생각보다 친구가 적은 편인데, 공부와 가수 활동을 병행하기 때문인가요?

김영은 : 아무래도 그렇죠. 수업 끝나자마자 가 버리니까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어요. 친한 친구와도 자주 연락하질 못하니까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도 있고요.

사회자 : 세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친구들과 언제부터 멀어지게 된 거죠?

김영은 : 글썽요. 언제라고 말할 만큼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함께 있을 시간이 없어지면서 거리가 조금씩 생긴 거 같아요.

김영은 : 음, 그건 오해예요. 그런 소리 들을까 봐 조심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조용히 있으니까 그렇게 보였을 것도 같아요.

사회자 :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김영은 : 네. 친구들이 저를 특별하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인터뷰할 때 필요한 이론적 유형에 대해 말하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누구’, ‘무엇’, ‘언제’와 관련된 질문은 폐쇄형이고, 의견과 관련된 ‘왜’, ‘어떻게’는 개방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세 번째 질문은 ‘언제’와 관련된 것이므로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 질문으로 보아야 적절하다.

5~6. 이번에는 전문가의 좌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 : 최근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은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인문학에 대하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인문학이란 어떤 학문인가요?

남자 : 인문학은 사람들의 삶과 생각이 담긴 기록들을 찾아 읽고 정리해서 인간을 이해하려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선인들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글도 있고, 허구적으로 인물의 삶을 그려낸 글, 또 인생의 구체적인 장면들과 거리가 먼 추상적인 원리들을 담은 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남긴 모든 기록들이 인문학의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자 : 한 가지 보태면요. 글만이 아니라 그림이나 영화 같은 비언어적인 매체들도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인문학이 다루는 자료가 됩니다.

남자 : 예. 그렇습니다.

사회 : 과학자들도 연구를 위해서는 많은 글을 읽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인문학적 연구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여자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학은 대상들을 기술하고, 거기서 법칙을 찾고, 더 나아가서 현상의 배후에 감추어진 작동 원리들을 찾아 세계를 설명하고 예측하려고 하지요. 과학자로서의 글읽기란 자신들의 연구를 위한 수단이겠지요. 앞선 사람들의 연구를 단시간에 배우기도 하고, 최신의 연구 성과를 흡수하기도 하고요.

사회 :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 아인슈타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가 쓴 수필과 논문들까지 모두 읽고 정리한다면 그 사람은 인문학적 글읽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자 : 예, 아마도 그는 과학사를 연구하는 인문학자일 겁니다. 그와는 달리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물리 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의 글을 읽는다면 과학자로서의 글 일기가 될 테고요.

남자 : 선생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문학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남긴 기록 속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인간으로서 살 만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끌어내는 것, 이것이 인문학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인문학이란 한 사회가 쓰는 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사회가 제도적으로 수행하는 삶에 대한 반성이지요.

여자 : 그렇죠. 인문학의 위기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일기는 무슨 일기냐 하는 태도가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뜻하는 셈이지요. 사실, 그간 우리 인문학자들이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는 데에 좀 소홀했던 점도 있긴 있죠.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은 인문학자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남자 : 예. 아픈 곳을 찌르는 말씀이네요. 옳은 지적입니다.

5. 좌담에서는 인문학에 대한 성격을 중심으로 그에 관한 종합적 고찰을 다루고 있다. 대담에서는 인문학이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이해하려는 학문이며, 그 연구 자료는 기록뿐 아니라 비 언어적인 매체도 연구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인문학은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통찰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 제도적으로 수행하는 삶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글읽기를 통하여, 현상 배후의 작동 원리를 밝히는 것’은 ‘과학’연구의 수단이라 했으므로 ③은 거리가 멀다.

6. ‘인문학이란 어떤 학문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남자 전문가가 먼저 자신의 견해를 말하자 여자 전문가가 그 내용에 동의한 뒤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남자 역시 여자 전문가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여, 두 전문가는 우호적이고 공감적인 분위기 속에서 좌담을 전개하고 있다.

7. 연상 내용의 적절성 확인

첫 번째 단계의 연상이 제목에 적절한지 파악해야 하며, 다음으로 첫 번째 연상과 두 번째 연상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첫 번째 연상은 ①~⑤ 모두 대화의 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④에서 ‘수다스러운 말보다는 침묵이 더 빛날 때도 있다.’라는 내용은 ‘솔직한 표현과 완곡한 표현’과는 관련이 없다.

8. 주어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확인

보고서는 설문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해야 한다. 설문 조사의 결과 도출된 주요 답변의 내용은 ‘재정적 열악성’, ‘제도적 지원 미비’, ‘상업적 대중성 경향’, ‘학부모의 이해 부족’ 이므로 보고서의 내용도 이에 한정해야 한다. ④는 ‘관객들의 인식 부족’에 관한 내용으로 설문 결과와 관계 없으므로 올바른 보고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9. 논리 전개 과정의 이해

논리 전개 과정 중 (A)에는 앞의 과정에서 이야기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 즉 ‘재원 마련 방법의 다양화’, ‘기부 참여의 유도’, ‘기부 문화의 의식 전환’의 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 내용이어야 한다. ④는 ‘기부금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내용으로 ‘소외 계층 지원 개선 방안’을 위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이 없어 논지에서 벗어난다.

10. 주어진 조건 활용의 적절성 확인

홍보물을 위한 조건에 주목한다. 주어진 조건에서는 동아리 이름인 ‘별 볼 일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묘미를 살리고, ‘별과 우주와 인생’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홍보 문구를 압축적으로 제시하되 ‘대조 기법’을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①은 ‘별 볼 일 있는 사람’과 별 볼 일 없는 사람 ‘을 대조하여 대조의 기법을 살리는 동시에 동아리 이름의 묘미를 살렸으며, 우주와 인생이라는 내용을 담아 내어 제시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11. 주어진 글감의 효과적 적용

주어진 글감을 내용에 맞도록 조직하는 문제이므로 3회에 걸친 각각의 기사 제목과 글감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통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ㅁ’은 재취업을 위해 눈높이를

낮추는 것은 취업을 위한 개인의 자세와 관련되므로 사회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12. 고쳐쓰기의 적절성 확인

주어진 지문 속의 내용은 ‘과도한 인간의 욕망이 불러오는 문제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과정과 결과가 측면에서 보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해에 관한 것이다. ㉠의 속담은 돈을 벌 때는 천한 일이라도 하면서 벌고 쓸 때는 떳떳하고 보람 있게 쓰라는 말로,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말이다. 따라서 ⑤는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므로 지문의 내용에 어울리는 주제라 볼 수 없다.

13. 어법에 맞는 문장 찾기

①은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라고 써야 하며, ②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고 써야 한다. ③은 ‘돈이 너무 적어’로 써야 하며, ⑤는 ‘김장을 직접 담가’로 써야 한다. ④는 ‘늘이다’와 ‘늘리다’의 쓰임을 묻는 문제로, 수나 분량의 경우에는 ‘늘리다’, 길이나 넓이의 경우에는 ‘늘이다’를 사용하므로 ④는 올바른 표현이다.

14. 단어의 내포적 의미 이해

주어진 조건에서 ‘㉡ 소리를 동반’하는 것은 ①, ③, ⑤이고, ‘㉢입을 주목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①, ②, ④이며, ‘㉣일회성’에 해당하는 것은 ①, ④이다. 따라서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웃음 상징어는 ① ‘피식’이다.

[15~19] (가) 백석, ‘고향’ (나) 김춘수, ‘내가 만난 이중섭’ (다)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편 툇마루’ (현대시)

15.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가)의 화자는 ‘북관’이라는 타향에서 만난 의원을 통해 ‘고향’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고향을 상실한 화자의 현실을 보여준다. (나)에는 기다리지만 오지 않는 ‘아내’ 때문에 즉, 아내의 ‘부재’로 인해 슬픔과 절망을 느끼는 이중섭의 모습이 담겨 있다.

16. 시어의 의미 파악

(다)의 ‘거울’은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쳐어 있는’ 소재이며, 여기서 ‘외할머니의 얼굴’은 내게 위안과 편안함을 주는 그리움의 대상이다. 따라서 (나)의 이중섭은 거울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모습을, 내면적으로는 그리움의 대상인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17. 다른 상황에서의 적용

(가)의 ‘의원’은 화자로 하여금 고향고 아버지를 느끼게 해 주는 통로이며 매개이다. <보기>의 내용에서 테세우스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곳은 ‘비밀의 방’이며, 그곳에 가기 위한 통로가 바로 ‘미궁의 문’이다.

18. 발상과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이해

(나)의 ㉔과 <보기>의 그림은, ‘대상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이질적이고 비일상적인 사물’을 연계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를 감상하는 입자에서는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갖고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이해가 가능하다.

③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는 시인의 마음’은 (나)와 관계가 없다.

19. 함축적 의미의 파악

(다)의 ‘집 뒀안’은 구체적 배경을 제시하며, ‘집 뒀안’과 ‘장독대’는 화자에게 있어서는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소재 또는 공간이며, 독자에게는 향토적 정감을 불러 일으킨다.

[20~24] 비문학 제재(인문)

20. 논지 전개 방식의 파악

이 글에서 글쓴이는 전통을 자기 문화를 본질적 특성으로 인식하는 통념을 비판하며, 전통은 시대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의 킬트를 사례로 들어 킬트가 정치·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통임을 증명하고 있다. ②에서 사회적 통념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글쓴이가 반박하기 위한 것이며, 통념의 변화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21. 핵심 내용의 파악

첫째 문단에서 과거의 문화를 오늘날과는 다른 문화로 보아야 할 필요성을 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 문단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전통의 실체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②가 적절하다. ⑤는 전통을 특정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고 했으므로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

22.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⑤에서 김치를 한민족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통에 대한 통념이며,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현재적 의미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견해이므로 전통의 타문화라 볼 수 없다.

23. 문맥적 의미의 파악

‘자리를 잡다’와 바꿔 쓸 수 있는 어휘는 ‘일정한 곳에 자리 잡아 살다.’라는 의미의 ‘정착되다’가 적절하다. ‘정돈’이나 ‘정비’는 ‘바로잡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24.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사람들이 전통이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것이라는 내용과 일치하는 사례는 ①이다. 인도인은 카스트 제도를 전통이라 믿고 있지만, 이는 영국의 식민지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㉔과 일치한다.

[25~28] 이옥, 심생전

25. 사건의 의미에 대한 추리

[A]는 심생과 처녀가 처음으로 만나 눈이 마주치게 되는 장면인데, 심생과 마찬가지로 처녀 역시 심생에게 호감을 느끼게 됨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장차 두 사람 사이에 사랑과 관계된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② 오히려 긴장감이 다소 고조되는 부분이며, ③ 행동이 드러나 있으므로 처녀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며, ⑤ 계속해서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으므로 시점이 변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

26. 인물의 심리에 대한 추리

[B]에서 처녀가 여종을 안방으로 보낸 것은 처녀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물쇠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① 처녀는 처음부터 심생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차분하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호감을 숨기고 있고, ② 처녀는 심생이 처음부터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③ 심생의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물쇠를 가져오게 하는 이유를 둘러 대고 있으며, ⑤ 심생을 단념시키기 위해 일부러 자물쇠 채우는 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27. 다른 작품에의 적용

처녀 역시 심생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있으나, 사회적 규율 때문에 자신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했다. 따라서 ㉠의 장면에서 처녀는 심생의 청을 거절하기는 했으나 마음 속으로는 심생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⑤(황진이의 시조)에서 화자 역시 임을 구태여 보내고 난 뒤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의 정서와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28. 감상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

주어진 작품은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좌절되는 순수한 사랑에 대한 인간적 욕구를 다룬 작품의 전반부인데, 섬세하고 생동감 있는 묘사로 등장 인물의 심리를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짧은 문장을 연속해서 배치하여 장면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또한 심생의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동경, 인정과 파루를 치는 등을 통해 당시대인의 삶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⑤ 주어진 지문에는 심생의 사랑에 대한 순수한 집념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랑이 결실을 맺는 장면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히려 사회적 제약 때문에 그의 사랑이 처녀에게 거절당하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29~33] 오정희, 중국인 거리

29. 세부 정보의 추리

‘나’의 가족은 ‘할머니-아버지-나’의 삼대에 걸쳐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의 ‘내가 이 시와 나눈 최초의 악수였으며~’로 볼 때 이곳이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처음 부분의 ‘선창을 지나 항만의 북쪽 끝’과 ‘해안촌’이라는 이름을 통해 항구 도시임을 알 수 있고(㉢), ‘살지 못할 동네’라는 할머니의 말씀에서 현재 처한 환경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음(④)을 추리할 수 있다.

30. 소재의 기능 파악

‘석탄’은 학교가 파한 후의 ‘우리’의 모습, 할머니의 모습과 말씀, 그리고 겨울방학이 끝난 후 학교에서의 일들 등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앞부분에서 아이들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석탄’ 때문은 아니다.

31. 내용 및 표현에 대한 이해

[A]부분을 <보기>와 같은 표현으로 바꾸었을 때의 가장 큰 변화는 ①, ③, ⑤와 같으며, 공장과 수위에 대한 표현(슬레이트 지붕, 높다란 굴뚝, 나이가 많은) 등에서 ④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심 제재인 ‘밀’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32. 소재의 이미지 파악

②~⑤는 지문의 내용과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노란색’이 겨울의 이미지와 대비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동네 아이들의 소망과는 더욱 거리가 멀다.

33. 어휘의 의미 파악

㉠의 ‘바르다’는 ‘한데 어울려 있는 것 속에서 필요한 것(필요하지 않은 것)만 골라내다.’의 의미이며, 이와 같은 의미는 ⑤이다. ① ‘액체나 가루 따위를 다른 물체에 묻히다.’ ② ‘종이나 형질 따위에 풀칠을 하여 다른 물체에 붙이다.’ ③, ④ ‘도리나 사리에 맞아 어긋남이 없다.’

[34 ~ 38] 비문학 제재 (언어)

34.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새로운 언어의 생성으로 인해 기존 어휘의 의미 범위가 변함으로써 체계 전체에 걸쳐 변화가 일어난 예에 해당하는 것은 ③이다. ‘우’와 ‘양’이라는 평가 요소의 소멸로 인해 기존의 ‘수,미,가’가 의미하는 범위가 변하게 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35.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대체로 어휘는 개방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므로 선택의 폭이 넓지만, ④와 같은 경우는 선택 가능한 어휘가 ‘적다’와 ‘많다’ 정도로 제한된다. 따라서 ④는 폐쇄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반면 ①, ②, ③, ⑤의 경우에는 다양한 어휘 선택이 이루어진다.

36. 주어진 조건의 올바른 활용

⑤에서 ④와 ⑥는 한 문장을 구성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이므로 선택 관계가 아니라 통합 관계이다. ①에서 <보기>는 하나의 이야기로 ‘구조’이며, ②에서 ④는 문장이므로 이야기의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

37. 주어진 조건의 올바른 활용

지역을 기준으로 한 선택 관계에 해당하는 예는 ①이다. 한 봉사는 ‘문수하오’라고 외치고

다른 봉사는 ‘문복하오’라고 외치는데 이는 서울과 시골이라는 지역차에 의한 것이다. ②는 시대를 기준으로 한 선택 관계의 예이며, ③과 ⑤는 계층을 기준으로 한 선택 관계의 예이다.

38. 세부 정보의 파악과 적용

①은 ‘어떤 수학자가 그 문제를 풀었다.’, ②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다.’, ③은 ‘어머니가 아이를 안았다.’, ④는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로 능동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⑤의 경우 ‘감기가 철수에게 걸렸다.’라는 능동표현은 불가능하다.

[39 ~ 42] 비문학 제재(예술)

39. 정보의 개괄적 확인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문장 ‘좋은 그림책은 완성되어 있는 글에 그림을 그려 넣은 책이 아니라 글과 그림이 함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는 책이다.’에서 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문단에서 ‘오늘날 그림책 속에 담긴 일러스트레이션은 점점 회화적인 요소가 강해질 뿐만 아니라’라고 했으므로 ③은 정답이 아니며, ①, ②, ④는 지문 속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40. 정보의 파악과 적용

첫 번째 문단에 설명된 일러스트레이션의 변화 과정은 ‘책을 장식하는 요소로 사용되어 왔다가 오늘날 회화적인 요소가 강해질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설명한다는 목적 때문에 예술적 의의를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일러스트레이션이 실용적 가치의 한계를 뛰어넘어 예술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음을 추리해 낼 수 있으므로, 가장 유사한 성격의 변화를 겪은 것은 ⑤이다.

41. 구체적 상황에서의 적용

㉠은 ‘말이 줄어들어 생긴 빈 자리에 상상력과 사유가 깃드는’ 상황을 ‘건축 설계에서 형태, 장식, 공간과 같은 요소들 가운데 공간을 다양하게 변용하는 데’ 적용시켰으므로, 그 ‘공간 변용’은 반드시 빈 자리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간을 줄여 빈 공간을 만들고 자연 공간으로 활용한 ①이 가장 적절하다.

새로운 공간을 더 만든 ②나, 생활 공간을 넓힌 ③, 통로를 만든 ④는 공간을 줄여 빈 공간을 만든 것이 아니므로 답이 될 수 없다.

42. 문맥적 의미 파악

㉠에서 ‘화가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저러한 형태들과 방향들이 어찌어찌하여 그냥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②의 내용이 가장 거리가 멀다.

화가의 입장에서 ①, ⑤를 경험함을 생각해 낼 수 있고, 독자의 입장에서 ③, ④와 같이 그림을 읽어야 함을 생각해 낼 수 있다.

[43~47] 비문학 제재 (과학)

43. 핵심정보의 파악

첫째 문단에서 고전 역학의 기본 가정들을 소개한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는 그 기본 가정과 어긋나는 양자 역학의 불가사의함을 소개하고, 마지막 문단에서 양자 역학의 한계를 언급했으므로, 핵심적인 정보는 ②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①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③은 두 번째 문단의 예에만 관련된 내용이므로 제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 글은 고전 역학보다 양자 역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④), 양자 역학이 고전 역학을 대체하였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44. 정보 사이의 관계

㉔의 예는 두 번째 문단에서 언급한 지구에 놓인 한 입자와 금성에 보낸 한 입자 사이의 물리적 속성의 변화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 속성의 측정에 관한 ㉔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㉔는 ㉔의 가정에서 벗어난 예이므로 ㉔이 적절하다.

㉔는 고전 역학의 가정에서 벗어난 예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①, ②는 정답이 아니며, ④는 ㉔와의 관련을 언급했으므로 정답으로 볼 수 없다.

45. 세부 정보의 확인

세 번째 문단에서 ‘지구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은 후, 연이어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고 다시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면 +1과 -1이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고 했고, A는 다시 측정한 수평 운동량에 해당하므로, ‘딩’, ‘댕’ 소리가 반반의 확률로 날 것임을 추리할 수 있다.

또한 이 예는 같은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합이 0인 한쌍의 입자에 관련한 예이므로 B에 들어갈 소리는 각각 A가 ‘딩’ 일 때는 ‘댕’, A가 ‘댕’ 일 때는 ‘딩’ 이어야 한다.

46. 세부 정보의 확인

두 번째 문단 첫 문자에서 ‘양자 역학은 고전 역학보다 더 많은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고전 역학을 대체하여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 되었다.’라고 했으므로 ②에서 물리학자들이 고전 역학이 양자 역학보다 예측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은 정답이 될 수 없다.

47. 어휘의 의미 파악

문제에서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는 ‘금성’에 대한 설명이 ‘샛별’이라는 순우리말에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중심 별의 주위를 돈다’는 의미와 ‘잔별(작은 별)’이라는 우리말을 연결시킬 수 없으므로 ②가 정답이다.

[48~51] 비문학 제재 (사회)

48. 문단의 기능 파악

(마)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가)에서 ‘반사회적 사회성으로 인간의 소질이 계발된다.’는 논지와 ‘반사회적 사회성의 개념’을 설명하였고, (나)에서는 이를 부연 설명하였다. (다)에서는 ‘반사회적 사회성’으

로 인해 인간의 소질이 계발되는 과정을 심화하여 설명하였고, (라)는 ‘반사회적 사회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였으므로, 다른 각도에서 논지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9. 세부 정보의 파악 및 적용

문제에서 언급된 ‘인간의 양면성’이란 본문의 ‘반사회적 사회성’이며, ‘반사회적 사회성’이란 사회에 속하여 자신의 자연적 소질을 실현시키면서도 사회에 반하여 자신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려는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을 예술가의 입장에 적용하여 보면 사회에 속하여 자신의 소질을 실현시키려 하는 ㉠과 기존의 법칙을 거부하고 스스로 법칙을 부여하려는 ㉡이 정답이다.

50. 정보의 관계 파악

(나), (다)에 제시된 ‘진보’의 과정은 ‘반사회성→개인들 사이의 갈등→자연적 소질의 계발→지속적인 계몽→성숙한 사회 방식의 확립’으로 요약할 수 있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51. 주장에 대한 비판

㉠은 ‘인간에게 반사회성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재능이 구현되지 못하고 사장될 것이다.’는 내용이므로, ‘반사회성이 없어도 재능이 계발될 수 있다.’는 ③이 ㉠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타당하다.

①, ②는 핵심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 제기이다.

[52~56] (가) 유종원, ‘강설(江雪)’ (나) 이이,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다) ‘유산가(遊山歌)’ (고전시가)

52. 작품의 종합적 감상

(가)는 눈 내리는 강의 정취를 관조적으로 표현하여 드러내고 있다. 이에 비해 (다)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다)가 (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연물과 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에 비해 (다)의 화자가 대상과의 거리가 멀다는 ①은 적절한 설명으로 볼 수 없다.

53. 시어의 내포적 의미 이해

(가)의 작품은 ‘산-길-배-낙시질’의 시선 이동을 통한 시상 전개 방식으로 외부 세계와 단절된 노인의 모습을 통해 고독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사람 흔적’은 ‘늙은이의 살아온 삶의 흔적’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 단절된 적막함을 드러내기 위한 시어이므로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54. 외적 준거에 의한 비판적 감상

<보기>의 내용은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느끼는 ‘마음 안의 풍경’이 고전 시가를 이해하는 중요한 잣대가 됨을 언급하고 있다. ‘야외(野外)’는 화자의 마음 안 풍경을 떠올려 주는 실제 풍경이 아니라 속세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③은 올바른 해석으로 볼 수 없다.

55. 주어진 조건의 올바른 적용

<보기>는 시조의 형식이 지닌 의미에 관한 것이다. 3장 형식의 기능과 그 형식이 지닌 창작 면에서의 용이성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생각은 시조의 정형성을 전제로 한 효과에 주목한 것이어야 한다. ④는 형식 창안의 어려움에 관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56.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

(다)는 봄산의 경치를 즐기는 시적 화자의 흥겨움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선인들의 삶에 대한 낙천적인 태도와 유희적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기러기가 슬피 운다’는 표현은 전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기는 하지만 시적 화자의 비애의 정서라 볼 수는 없으므로 ①은 적절한 설명이라 할 수 없다.

[57~60] 김용준, ‘게’ (수필)

57. 내용의 비판적 이해

[A]에서는 게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를 드러내어(①), 욕심에 눈이 멀어 공동동망(共倒同亡)하는 인간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②,④). 또한 앞에서는 ‘무장공자’라고 하여 게를 높게 평가하다가 이 장면에서는 ‘해공(蟹公)’이라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여 어리석은 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⑤)

58. 관점의 추리·상상적 이해

㉠에서는 대상을 통해 작가의 정신이 표현되어야만 일생을 바칠 만한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보기>에서는 “수(手)에 있는 것이지, 흉중(胸中)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숨씨를 중시하고 표현된 정신을 중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은 작품에 담긴 마음을 중시하고, <보기>에서는 표현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59. 구체적 상황への 적용

이 글에서는 물리적 속성을 드러내는 ㉠의 명명 동기를 소개한 후, 그 명명에 담긴 일반인의 부정적 인식을 소개하고, 글쓴이는 이러한 일반적 인식과는 다른 역설적 의미를 발견하여 대상을 재인식하고 있다. ⑤에서도 ‘느리다’는 물리적 속성 때문에 ‘느림보’라는 놀림을 받던 친구를 통해 느림의 이면에 담긴 긍정적 측면을 역설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대상을 재인식하고 있다.

①의 경우 역설적 인식의 과정이 담겨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60. 감상의 적절성 평가

글쓴이는 세상사에 얽히기를 싫어해서, 또는 그리기가 수월해서 게를 자주 그려서 선물하는 것이 아니다. 게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할 수 있고, 또 인간의 삶에 대한 교훈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게를 화제(畫題)로 즐겨 사용하는 것이다.